



2021년 2월 7일(제1021호) 연중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러셀(Russell)”

군대에서 겨울에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어떤 날 일까요? 네, 맞습니다. 눈이 오는 날입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 21사단인 백두산 부대에서 병 생활을 할 때,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강원도의 눈을 보며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눈길을 헤치고 어딘가를 가야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길이 산길이라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 덮인 산길을 가는 데 사용되는 ‘러셀(Russell)’이라는 등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쌓인 눈 위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길을 터주는 힘든 작업과 방법을 뜻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러셀’로 겨울 등산로를 개척해주어 그 선두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등산이 한결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배의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며,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러셀’의 모습으로 혼자서는 지나가기 어려운 ‘겨울 산’과 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아파서 두려웠던 베드로의 장모,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던 이들, 가장 보잘것없고 힘들고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치유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겨울 눈 덮인 산과 같이 어렵고 힘든 군대 안에서 게으름과 귀찮음의 마귀에 들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임과 상사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온갖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복음에 치유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만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의 온갖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귀찮음의 눈 덮인 세상이라는 산길을, 당신의 위로의 말과 치유하는 행동의 발자국을 찍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장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러셀’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으로 남겨주신 위로와 치유의 발자국인 ‘주님의 러셀’을 따라, 이 어려운 군대라는 눈 덮인 ‘겨울 산’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합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치유 받은

진승범(베드로) 신부
장병세리핀(해병2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요 7,1-4.6-7

회 답 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 2 특 시

1코린 9,16-19.22-23

복음 관 호 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마르 1,29-39

영 성 제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 물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내 번째 시한

그런데 어떤 외교인들이 신부님들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관에 가까이 갔을 때, 안내자는 여러 가지 귀찮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강변에 내려서 검문 장소를 슬그머니 지나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빠진 지 얼마 안되어 대단히 질퍽거렸는데, 세관에서 뻔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두 요셉은 토마스를 데리고 일을 처리하러 세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우리는 매스트르 신부님, 브뤼니에르 신부님, 두 명의 선원들과 저 이렇게 다섯 명이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우리가 질퍽하고 길도 없는 강변에서 허둥거리는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신부님들을 영국인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정 20명 가량이 고향을 치며 우리한테로 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손님 안내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경찰관들인 줄로 여겨 겁이 났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경찰관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장소 관계로 조금 떨어져 있던 선원들에게 제가 껏속말로 신부님들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안색이 변했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붙잡으며 여러 가지로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매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던 책 때문에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질문을 하였으므로 제가 화난 소리로 ‘당신네들은 안녕 질서를 위하여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관들이면서 무고한 인민을 모욕적으로 대한다’고 꾸짖었더니, 우리를 내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 두 요셉 회장과 토마스는, 우리가 체포되어 법정에 끌려가는 줄로 짐작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수레를 타고 요셉의 집에 다다랐으나, 두 씨 가족 외에 다른 신자들은 모두 신부님들을 맞이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베를 주교님이 그들 집에 유숙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범 요한과 토마스는 개주(蓋州) 근처의 교우촌으로 갔고, 매스트르 신부님과 저는 어떤 과부의 작은 집을 세내어 머물면서, 조선으로 출발할 날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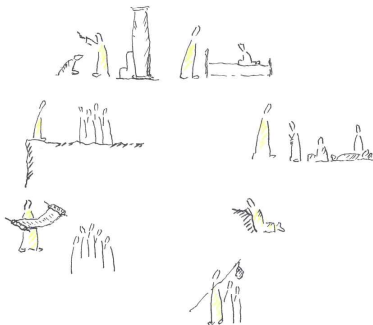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베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바쁜 일과



참, 바쁘게도 사신다.
저러다, 몸 상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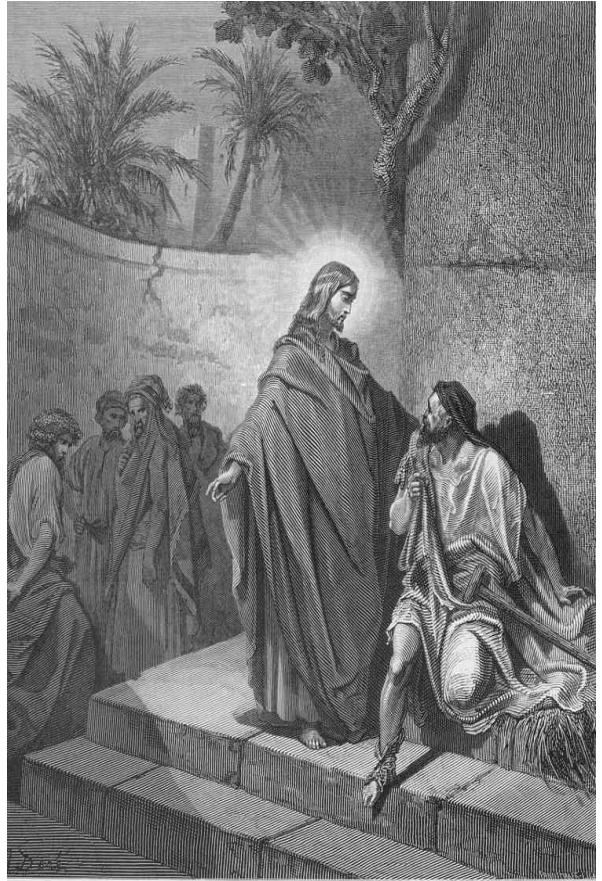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그를 움직이신다.

그런데,
나도 참 바쁘는데,
왜 이리
다르게 느껴지지.

상화이야기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Jesus Healing the Sick" by Gustave Doré



THE DUMB MAN POSSESSED
Then was brought unto him one possessed with a devil, blind, and dumb: and he healed him, insomuch that the blind and dumb both spake and saw. ... (Matthew 12:22)

구스타브 도레 / 판화, 1890년 작

구스타브 도레는 단테의 신곡뿐 아니라 성경의 삽화도 제작한 삽화 전문 화가로,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평을 받았다. 본 판화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으로, 병자들과 인파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과 병자에게 손을 대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5주일: 삼위일체 양장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2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